

공동체 소식

예수 성심 성월 안내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가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매일미사 3쪽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매미사 전과 가정에서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양형영성체 있습니다.

Peter's Pence 2차 헌금 안내

6월 30일(연중제13주일)은 교황 주일이며 2차헌금 있습니다.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를 위해 “교황님을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를 바쳐주시시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박하게 전개되는 현 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체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25일(화)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9쪽)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리 방학

-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평협회 안내

- 3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6월 구역모임 안내

4구역 - 29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15334 Ri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미사 안내

- 7월 2일(화)~4일(목) 미사 없습니다.
- 토요 신심미사 9월부터 시작합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텔 (27가정)

전례 성가

| | 입당 | 예물 | 성체 | 파견 |
|-----|-----|-----|-----|-----|
| 금 주 | 163 | 221 | 506 | 200 |
| 차 주 | 55 | 220 | 502 | 4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제2독서 |
|-----|----------|-----------------------|
| 금 주 | 박태주(로마노) |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
| 차 주 | 김대연(요셉) |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

주일미사 복사

| | 향복사 | 시종복사 |
|-----|------------|----------------------|
| 금 주 | 정예찬(미카엘) |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
| 차 주 | 고평원(프란치스코) | 정예진(한나) 김정훈(로베르토)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홍순익(마르티노), 김동술(요한) |
| 차 주 |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
| 차 주 |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루카 9, 16-17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4,18-20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다.>



화답송 :

-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뺏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23-26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생명의 말씀

빵과 포도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교회 는 첫째 독서로 창세 14,18-20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서 멜키체덱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살렘 임금이 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입니다. 그는 승전 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 다. 그리고 아브람을 축복합니다. 멜키체덱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약에서 '사제'라고 불리는 첫 인 물이기에 멜키체덱이라는 이름은 유대 전통에 깊이 각인되 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0,4는 멜키체덱을 '영원한 사제' 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그 시편을 알고 있던 히브리서의 저 자는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구한 사제직을 멜키체덱 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오늘의 둘째 독서인 1코린 11,23-26에서 예수님은 (마치 멜키체덱처럼)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들 에게 축복의 말씀을 내립니다. 그 축복과 함께 빵과 포도주 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됩니다. 아브람을 위해 준비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빵과 포도주는 물질적 인 실재입니다. 하지만 멜키체덱과 예수님을 통해 빵과 포 도주라는 물질적 실재에 하느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더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과 속의 만남입니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자연의 선물인 동시에, 인간 노동의 결 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은총과 인간의 활동이 만나고 거 기에 교회의 신앙이 더해지면서 성체성사라는 큰 신비가 완성됩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느님이 작은 빵 한 조각 과 포도주 한 모금에 함께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를 통해 교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고 소유하라고 속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그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통해서 행복에 이

른다는 깨달음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성체 성혈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음 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만이 사랑에 굶주린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느 님을 향한 배고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 생태계 의 평화에 대한 목마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연 대의 갈망이 성체와 성혈로 채워지고, 그렇게 충만해진 교 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주님!
음식과 잠자리를 구하게 하십시오.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아무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사랑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사랑해주어라.
너희가 목숨 바쳐 사랑해주어라.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루카 9,17)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말과 행동

저는 주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대 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보니, 좁은 울타리 안에 지 인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업무적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 다 보니 차후에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 고, 그렇지 못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말', 참으로 달콤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16세 기 계몽주의 사상을 이끈 볼테르의 명언 중 "사람은 할 말 이 없으면 남의 욕을 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때로는 가해자가 때로는 피해 자가 되어, 쉽사리 남을 도마 위에 올리고 혈똥기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악플러의 약 70%는 나의 주변 사람이라는 언론의 통계는 틀리지 않았 습니다. 예상 못 한 주변인의 말들은 저에게 비수가 되었 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야 하나?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이 싫어지고, 말수가 적어지 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갑자기 울다가 화가 나 기도 하는 제 모습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래도 저를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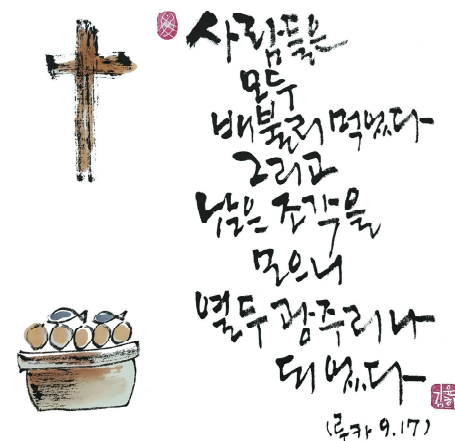
방탕하지 말자! 취해 있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꼭 쥐고 있던 미움 하나, 분노 하나, 자책 하나, 이렇게 하나둘씩 내려놓으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말로 인해서 낭비된 시간과 감정들보다 더 내려놓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낮은 자보다는 높은 자, 겸손보다는 자존감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하고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 어야 하지만 입으로만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행동은 제가 만든 모습과 제가 만든 계획대로만 가려고 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완전한 극복도 완전한 치유 도 없지만, 그저 주님이 마련하신 여정의 길을 멈추지 않 고 갈 뿐입니다.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담대하 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약한 저를 하느님께 봉헌 합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공동번역성서 잠언 16,33)"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김윤희 안드레아